

오체투지(상)

최현숙(서울 서초구 양재동)

올 여름에 가까운 도반으로부터 환경해 씨의 신행수기 <오체투지>를 선물 받았다. 신체장애인 환경해 씨는 일곱 살부터 20년 동안 매일 1천배를 계속해왔지만 자신의 몸이 나아지지 않자 더 어려운 수행을 결심했다. 백일동안 매일 만 배씩 부처님께 절을 하고 그 결과 놀랄게도 몸이 더 건강해지고 정신력은 일반인보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

<오체투지>는 그 기도 과정과 어릴 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수기 형태의 수필집이었다. 책을 읽고 나서 그동안 초발심 때의 간절한 마음을 읽고 세월 가는대로 그러저러 지내던 내 자신에 대해 반성하고 다시 한번 강도 높은 수행을 통해 더 고양된 자아를 완성하겠다는 욕구가 새롭게 났다.

특히 책 속에 나왔던 '인생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는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는 구절이 인상적이었다.

'인생에서 언젠가(Some day)라는 날은 없다.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하라.'

그 책을 끝까지 읽은 그날 밤 모든 일과를 마치고 방석을 펴고 앉았다. 당장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부처님 명호를 암송하며 한 번씩 절하기 시작했다. 밤 10시에 시작한 절은 꼬박 2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천배를 채울 수 있었다.

하루하루 기도하면서, 새로운 결심이 컸다. 절에 가서 인쇄도 올리지 않고 시작한 기도지만 회향은 제대로 해야겠다고 작정했다. 작은 딸이 대학수능입시를 치르는 11월까지 1만 부처님의 명호를 암송하며 총 십만배를 오체투지하겠다는 발원은 그렇게 세워졌다. 절을 처음 시작한 날은 2006년 6월 16일이었다. 회향 예정일은 수능시험 바로 전 일요일인 11월 12일로 잡았다.

절을 시작한 시기가 한여름이었다.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던 때라서 밤이 되어도 더위는 가시 줄을 몰랐다. 가만히 있어도

더운데 절을 하니 땀이 비 오듯 쏟아졌다. 머리, 목덜미와 법복 속의 종아리에도 땀이 흐르고 속옷은 금방 땀으로 폭 젖었다. 행여 땀이 젖은 상태에서 감기 들까봐 에어컨은 끄고 창문을 연 채 선풍기만 켜고 절을 했다. 찌는 듯 한 더위로 땀범벅이 된 채 평소 안 쓰던 근육을 움직이니 발끝, 종아리, 발목 관절 마디마디에 심한 고통을 느꼈다. 700배를 마치고 밤 12시를 훌쩍 넘었다.

그렇게 절이 끝나면 뜨거운 물로 머리부터 샤워를 했다. 평소에는 그렇게 싫었던 더위였는데, 일념으로 매진하다보니 크게

도록 화실에서 그림에 매진한다.

나는 전업주부가 아니라 직장을 다니며 두 딸을 키우는 경제적, 정신적 가장이기 때문에, 매일 2시간 30분씩 시간을 내서 절을 하기도 시간이 짧았을 뿐 아니라, 직장을 다녀와서 녹초가 된 몸으로 절을 하는 것도, 기도를 꾸준히 할 수 있는 정소를 찾는 것도 어려운 일이었다.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공부방을 운영 중인 나는, 처음에는 수업이 끝나고 난 뒤 근처의 사찰을 찾아 기도를 올렸다.

딸 수능시험 전 회향 목표로 십만배 발원

퇴근 후 매일 1천배씩 2시간 넘게 절 삼매

"언젠가 지금 흘린 땀 의미 알게 될 거야"

더운 줄을 몰랐다. 더위를 느낄 틈이 없었기 때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면서도 무었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것을 더 못 견디게 만든다는 것을 알았다.

비로소 올 여름, 더위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현오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희망을 품고 있으면, 지금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희망 속에서 살고 있는나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매일 밤 기도를 마치고 나면 그 시간까지 그림 그리고 있을 작은딸의 미술 학원으로 차를 운전해갔다. 큰 딸은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아직 20살인 작은딸은 미술대로 진학하기 위해 매일 밤 12시가 넘

그러나 사찰조차 문을 닫는 저녁 10시가 넘은 시각에도 기도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나만의 공간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고 돌아간 공부방의 문을 잠근 뒤, 준비해 온 법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한 구석에 방석을 놓은 뒤 한배 한배씩 절을 하기 시작한다. '바로 이 곳, 이 자리에서 길(道)을 찾는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절을 끝내고 나서 차를 운전해 작은딸의 학원으로 가는 길은 하루의 피로 때문에 늘 어지고 싶은 욕구와의 싸움이다. 만일 절을 안했다면 집에서 TV를 켜 채 누워서 이리 저리 채널을 돌리며 딸애의 학원이 끝나기만을 무료하게 기다렸으리라. 나는 그렇게



그림 · 문병성

마음을 다잡으며 절을 계속해 나갔다.

2년 전 작은 딸은 외국어 고등학교 2학년 재학 중에 자신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다가 '환경 디자이너'를 장래의 직업으로 택했다. 그 뒤 처음으로 미술 학원을 다니며 1년 반 정도 배운 그림실력으로 한 대학의 의상 디자인과에 합격했다.

뒤늦게 진로를 정해 실기 공부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기근과 나군 시험 때까지 실기 실력이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이다. 의상 디자인과 환경 디자인은 같은 디자인이지만 활동하는 분야가 전혀 다르고 나 또한 딸의 능력을 야기기에 아깝지만 일 년 더 노력하고 재도전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다른 많은 재수생들이 그렇듯, 재수 1년은 고등학교 3년 전부를 합친 것 만큼이나 힘들다. 그림 실기수업까지 하니 더욱 그렇다.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부담이 됐다. 그러나 나는 딸에게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가기 위해 시련을 견디고 한 번 더 도전할 기회를 갖는다는데 큰 의미를 갖자"며 "일 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하는 셈치고 재수를 같이 하자"고 다독였다.

아이를 데리러 학원에 가는 길에 차 속에서 BBS(불교방송)의 '살며 생각하며'를 들었다. 조용하고 사색적인 진행자의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와 방송에 직접 참여하는 청취자의 가지가지 사연을 듣는다.

직장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귀가중이거나 아니면 막 집에 도착해서 하루 겪은 일로 마음이 산란할 때 위로를 받기 위해 전화했다는 청취자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다보면 나 역시 힘들게 마감한 내 하루를 돌아보게 된다.

집에 돌아오면 난 도시락 설거지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지만 딸은 다시 책상에 앉는다. 비록 피로에 찌들고 힘들지만 딸에게 원하는 세계로 꼭 간다는 자기만의 꿈이 있다. 나는 딸의 모습에서 내가 생각하는 가치와 희망을 엿본다.

'꿈이 있는 한 사람은 행복하다'고 했던가. 언제나 두 아이들에게 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길러왔기에,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는 지금 흘린 땀의 의미를 알 수 있는 날이 오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계속)

신행수기 일년내내 받습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또는 수행의 현장에서 자신의 가슴에 차곡차곡 담아두었던 체험을 수기로 진술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귀중한 신행체험 수기는 많은 불자들의 수행생활에 좋은 지표가 될 것입니다.

- 주제: 일상속의 수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삶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장 안팎(4용지 4장)
- 접수처: (110-030) 서울시 종로구 청운동 54번지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2004-8241
- 인터넷 접수: bypark@buddhapia.com

김문기 박사의

통증킬러 수정기공요법

의학의 본고장 독일인들을 경악시킨 차세대 치료법. 진통제, 물리치료, 주사, 침, 한약, 비방, 교정법이 모두 필요가 없는 환상적인 기공요법 (S.T.T)

수정기공요법을 알면 귀하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특징

1. 기공수련도 없고, 배우이 어렵지 않습니다.
2. 힘이 들지 않습니다.
3.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4. 경비가 하나도 들지 않습니다.
5. 즉석에서 효과가 나타납니다.
6. 기구나 재료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7. 사술이 아닌 서양의학과 동양기공의 만남으로 환상적인 자연 그대로를 연출하는 요법.

시술 대상

두통, 경항통, 구안와사, 안검하수, 목 디스크, 오십견(부위별), 테니스엘보, 늑간신경통, 복통, 요통(부위별), 꼬리뼈교정, 요추증, 사경증, 치아교정, 유방교정, 허리디스크, 좌골신경통, 생리통, 퇴행성관절염, 족관절염, 족저통, 발가락변형, 중풍, 뇌성마비후유증, 전신장애 등등 수술을 제외한 전신의 모든 통증과 신경장애에 탁월한 효과 입증.

비엔나 종합병원에서 임상결과 확실한 효과를 입증하는 인증서 획득

- 교재주문: 수정기공크리닉 (일금 30,000원) ● 온라인 번호: 농협 162-02-025918 (예금주: 김문기)
- 속성강의 접수: 1개월 과정 (매월 첫째 주 시작 단 4일에 모든 과정을 필참, 선착순 8명)
- 참고: 홈페이지 SOOJUNG99.PE.KR 또는 수정기공크리닉.COM ● 장소: 수원 성대전철역 앞 전화 031)293-0806. 296-7806

탈종공고

- 사찰명: 보현정사
- 주 지: 정향
-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동 156-6

본 사찰은 귀 종단의 중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06년 10월 26일

대한불교원효종 총무원장 법하

간(肝)이

간지방간경화

건강애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울담과 비질만한 자연산 참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원거 97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일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055) 963-9583 · 상담문의: (055) 355-5626
신마을 도종 (민속농원)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한방요법으로 치료한다-관신원

상기 관절염 등 증상을 중단, 완화, 치료할 수 있는 관신원(丸)

통상 관절염이란 관절에 염증성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부딪치거나 뼈가 기형화되기도 하면서 극심한 통증을 일으킵니다. 윤량관절염의 윤량관절은 수험년동안 퇴행성관절염 · 류마티스 · 신경통 · 오십견 · 디스크 등의 환자와 전생하면서 연구개발한 관신원(丸)을 처방하여 환자에게 임상 결과 80-90% 이상 호전반응이 나오며 관신원(丸)을 5-7일만 복용해도 부드러운 느낌을 받으며 그동안 어떤 관절염 약을 복용해도 못 느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상담 하시거나 직접 방문하시어 상담을 하시고 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함약은 한의사와 상담 후 처방됩니다.

관신원을 드실 분

-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 무리가 오시는 분
- 기타 퇴행성관절염 증상이 심하신 분
- 류마티스관절염때문에 고생하시는 분
- 위궤양때문에 관절염 약을 못드시는 분
- 수술후 후유증이나 회복이 잘 안되시는 분
- 교통사고 이후에 통증이 심하신 분
- 신경통, 류마티스, 오십견, 디스크 등이 아프신 분

윤량관절염 상담문의 080-598-9832

법왕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학 24기 · 대학원 5기)

[행차] 불교대학 [스님] 대학원

- 불교학과 : 6개월 불교예절, 불교교리, 경전공부, 친도제 불교의식, 포교철학, 예불모시는 방법, 시식방법
- 법사·승려과 : 종합반(6개월) 스님이 되고자 하는 분, 법사가 되고자 하는 분 경전공부, 예불의식, 각종행사집전

- ◆ 접수 수: 수시접수
- ◆ 개강: 11월 15일
- ◆ 교육시간: 금, 토, 일(오후 1시부터 5시까지)
- ◆ 교재: 학생스님께서 출간한 통용불교의법과 통용재례의법
- ◆ 수료시: 졸업증서, 법사자격증, 포교상담자격증
- ◆ 장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 2동 고흥산 산하 외국어대 후문 뒷산
- ◆ 오시는길: 1호선 외대역 하차 → 외대앞 마을버스 승차 → 삼성아파트 정문하차
- ◆ 연락처: 호국불교 효예종 총무원 02)963-0607 H.P 017-361-0386 법왕불교대학 교무처 02)966-5523 / FAX : 02)966-0386
- ◆ 수강생특전: 친필 달마도 증정, 특별친견(고민상담)

「본 대학 졸업하면 더 이상 배울 것 없음」

학장 신 법 진 합 장